

거리를 갤러리로... 서울시, 59억 들여 도시경관 탈바꿈

가로환경 개선, 경관 정비 등 추진 지역의 강점 극대화할 장소 선정 2023년까지 공사 마무리 계획

서울시는 역사·문화적 가치나 지역 활성화 요소를 품고 있음에도 소외·낙후된 주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하는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시경관사업은 경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지역에 대한 공공의 직접 지원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매력있는 서울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가로환경 정비·개선, 녹화, 야간경관 정비, 역사적·문화적 경관 형성 등 경관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각 사업지별 특성에 맞

<도시경관사업 공모사업 선정 현황>

| 구분 | 사업명 |
|-----|-------------------|
| 금천구 | 시흥행궁 역사문화 보존 경관사업 |
| 중구 | 북창동 먹자골목 경관개선사업 |
| 종로구 | 자하문로4길·6길 경관개선사업 |
| 강동구 | 진행도로 경관개선사업 |
| 도봉구 | 창동 골목시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

/서울시

게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선정된 5개소는 ▲금천구 시흥행궁 ▲중구 북창동 먹자골목 ▲종로구 자하문로 일대 ▲도봉구 창동 골목시장 주변 ▲강동구 진행도로다.

금천구시흥행궁역사문화보존경관사업(시흥동 1000-124 일대)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인 '시흥행궁'과 '보호수'의 경관을 보전하고, 보행·가로환경과 야간경관을 개선해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지역환경을 조성한다.

중구 북창동 먹자골목 경관사업(북창동 남대문로1길)은 1970년대부터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거리이자 외국인 관광객 필수 코스인 먹자골목만의 개성을 살린다. 디자인적 요소를 적용해 건물 입면과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고,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해 침체된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종로구 자하문로 일대 경관사업(통의동 자하문로4길 일대)은 대립미술관 등이 위치한 거리 일대를 문화예술거리

로 탈바꿈시킨다. 인근 미술관 큐레이터, 설치미술가 등의 참여를 통해 추진한다.

도봉구 창동골목시장 주변 경관사업(창동 552-12 일대)은 창동골목시장, 신창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해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인다. 전통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과 연계해 무질서한 시장 주변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킬 예정이다.

강동구 진행도로 경관사업(둔촌2동 진행도로 145)을 통해서도 진행도로 중 유일하게 녹지가 없는 회색 가로공간에 가로숲길을 조성해 힐링가로로 개선하고, 쉼터도 만든다.

서울시는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지역

의 경관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최대 15억원, 총 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경관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음에도 소외·낙후된 지역들을 발굴해 공공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높은 주민 호응도를 바탕으로 올해도 5개 지역을 추가로 추진한다. 서울 곳곳이 동네 대표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경관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립발달장애인지원관 25년만에 신축

1일 평균 이용인원 약 4배 증가 최적화된 동선으로 건물 설계

서울시립발달장애인지원관이 개관 35년 만에 발달장애인에게 최적화된 다목적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서울시는 1986년 개관해 노후화된 지상1층짜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간 규모가 연면적 기준 247.66㎡에서 1184㎡로 4배 확대된다.

서울시는 복지관 1일 평균 이용인원

이 개관 당시보다 121명에서 최근 500명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8배 증가(10여개→80여개)해 필수 공간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신축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단열 성능 저하, 낮은 층고, 면적 부족 등 고질적 문제로 활용 효율이 매우 낮은 것도 문제였다.

특히 이번에는 복지관 주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적화된 동선으로 건물을 설계하고 각종 활동 공간을 새롭게 확충해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

다.

서울시는 최적의 설계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설계공모 결과, 손석계(주)SN B건축사사무소, 신병호(제이종합건축사사무소) 공동 응모자를 최종 선정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 말 완공해 개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립발달장애인지원관은 서울시가 설립하고 전문기관(한국지적발달장애인지원협회)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전문 복지관 6개소 중 시립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복지관이

/이현진 기자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 초등 고학년 '식물도감' 개설

실시간 화상회의 줌 활용 수업 진행

서울시는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서울식물원 8월 온라인 특강 '우리집 식물도감' 수업을 개설하고 오는 26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프로그램은 한 회 신청 시 이틀 간 수업이 이뤄지며 교육 전 실습에 필요한 재료가 각 가정으로 배송된다. 회당 20명 정원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재료비 5000원(배송비 포함)이다. 수업은 50분 동안 서울식물원 식물전

문해설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실시간 화상회의 앱(줌)을 활용하므로 PC, 노트북, 태블릿 등 기기가 준비돼야 한다. 수업을 통해 울릉도 특산식물인 '섬기린초 탐색하기'를 시작으로 ▲식물관찰법 알아보기 ▲도감 작성법 익히기 등 식물을 구분하고 식물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을 익히게 될 예정이다.

서울식물원은 지난해부터 온라인 식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매달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8월 초에는 온실에서 만날 수 있는 '하와이무궁화'에 대해 학습하고 채색해 보는 콜라주 수업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 시제품 제작 무료 지원

전년대비 지원규모 대폭 확대

서울시는 예비창업자와 업체, 시민을 대상으로 새활용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자원순환·재활용 촉진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새활용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원대상 규모는 60곳(명)으로 지난해(5개 업체 지원)에 비해 대폭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새활용제품 설계부터 디자인, 시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대학생, 예비창업자, 신생 창업기업(창업 3년 미만), 시민은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

2021 꿈꾸는공장 시제품 제작지원 프로그램
What'sup! Maker!

새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 제작 또는 자원순환, 재활용 촉진 위한 제품화 계획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여러비용을 겪고 있는 새활용 메이커 또는 기업에게 꿈꾸는공장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시제품 제작지원 세부내용 -

- 시제품 설계: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제품설계(CAD), 3D 모델링, 제품형상 소안출력 및 출품 및 배송비(가변 80,000)
- 시제품 디자인: 제품도면 / 원형 / 기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 용기 디자인 및 제품제작
- 제작 제작: 제조업체(CAM) 및 3D프린터 활용 (시간 및 금액 제한 있음)

지원대상: 서울·서울특별시 거주하는 창업 희망·실수업자, 대학생,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기업
신청기간: 2021년 7월 19일 ~ 10월 31일
신청처: 개인 또는 단체 신청은 가능
접수방법: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신청서(신청대상자) > 작성후 제출
제작방법: 온라인 - 이메일 접수 (02-Facility@hwha.com) / 오프라인 - 서울새활용플라자 1층 꿈꾸는공장 현장 접수
문의처: 꿈꾸는공장 운영팀 (02-2153-0415)

수하거나 서울새활용플라자 1층 '꿈꾸는 공장'으로 현장 접수하면 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새활용플라자 '꿈꾸는 공장' 운영팀으로 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횡령 제보시 보상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횡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22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열린 제2회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서울 관내 한 중학교 교직원에게 공익제보 보상금으로 221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교직원은 교육청이 인건비로 지원한 예산을 이사장 개인 고용인 급여로 지급하는 등 학교법인에서 발생한 횡령 사실을 제보했다. 공익제보로 교육청은 7388만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제보 보상금은 환수금의 30%인 2216만원이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환수금이 1억원 이하일 경우 환수금의 30%로 책정된다. 이 밖에도 교사 성희롱 행위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등 세 명이 공무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1 | 해질 / 19:46

7월 26일(월)
음력 : 6월 17일

수도권 날씨
26~3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기온: 연천 23/34, 동두천 24/34, 가평 23/35, 파주 24/34, 서울 26/36, 양평 23/34, 인천 26/33, 수원 26/35, 용인 26/35, 평택 23/35, 백령도 23/30, 인천 26/33, 서울 26/36, 양평 23/34, 수원 26/35, 용인 26/35, 평택 23/3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日 코로나 신규 3574명·나흘만에 3천명대로... 총 86만6429명
▲우크라이나 언론, MBC 체르노빌 방사선 측정기... 분노 여론 확산 [사진 뉴시스]

▲프랑스, '백신 여권 반대' 시위...경찰, 물대포·최루탄 진압
▲美, 하루 확진 10만명 돌파...접종 속도 떨어지고 델타 확산하고



▲서유럽, 중국 이어 인도 서부도 홍수로 큰 피해... '지구온난화 영향'
▲'현대물리학 거장' 이론물리학자 와인버그 88세로 별세 [사진 뉴시스]